

## <담임 목사 메세지>

#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이 영길 담임 목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거절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쩔수 없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 때 세 친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다스리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하면서 이제는 하루 하루가 소중한 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번 겨울 따뜻하고 눈이 안 오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겨울 내내 공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대로

날씨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위 가운데서도 하루라도 일을 마치려고 강추위에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눈과 함께 혹한이 닥칠 때마다 일손은 멈추곤 했습니다. 사실 예년보다 눈은 더 많이 오고 날씨는 더 춥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언젠가 올 해 왜 강추위가 왔었는지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아니, 알게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교육관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이도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입니다.

## 당회 소식

당회 서기: 김문소 장로

### 1월 공동의회 및 당회 소식

1. 2008년 연례보고서를 채택, 통과시켰습니다.
2. 2009년 재정 예산, 총 \$925,000을 인준하였습니다.
3. 담임목사와 행정 목사의 사례비를 인준하였습니다.
4. 2008년 잔액 \$79,272.36중 조국지정현금 \$7,493.90과 노회 선교지원 \$13,000을 제외한 \$58,772.86을 ECC 건축 기금으로 전환토록 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신입/재임 제직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신임서리집사(23명): 강혜정, 박서영, 김연희, 김은정, 김정현, 김진기, 김태수, 김현주, 김혜영, 노은경, 박용주, 방경남, 소창호, 송정숙, 신소정, 유승오, 이성우, 이성희, 이현주, 정하균, 조성호, 한대근, 황옥란

- 신임권사(1명): 김여영  
 신임안수집사(13명): 고진수, 김상기, 박선희, 박진욱, 배한원, 안명훈, 윤선미, 이기순, 이승연, 이원기, 이정일, 조유미, 태영미  
 재임안수집사(5명): 강정임, 김준구, 심기선, 윤희경, 이문영  
 신임장로(2명): 김성현, 이정규  
 재임 장로(3명): 김문소, 김정선, 홍경자
6. 교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가. 장로 (Elder)

- 1) 70세 이상된 교인은 임기 1년의 장로로도 선출될 수 있다.
- 2)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은퇴 할 수 있다.

### 나. 공천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

공천위원회는 활동교인으로 2년 이상된 교인 중 매년 아래와 같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1명씩 공천위원 후보를 자체 선출하여 공동의회에서 참석인

주님, 주님이 그 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분을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아 있는 권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하심이 항상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교우 동정 / 광고

1. 12월- 김태수 교우님 부친과 김호일 교우님 부친께서 한국에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2. 12/19-이요한/김희진목사님 가정에서 득녀(혜원, Noelle) 하셨습니다.
3. 12/21- 최현구/김희현집사택 득남(재운, Joseph) 하셨습니다.
4. 1/ 26- 임소영 교우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5. 1/ 31- 고 김갑성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6. 2/ 2- 최 준/김정혜 교우택에서 득녀(서연, 가브리엘) 하셨습니다.
7. 세금공제용 현금 통계(2008)이 필요하신 분은 위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kmyoonkcb@hotmail.com)로 보내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tel: 617-739-1366, fax: 617-739-1366)  
 8. [사순절 목상집] 발간 : 올해 2월 25일 재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새로와지기 위해 사순절 목상집을 발간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손수 쓰신 글들로 엮어진 이 사순절 목상집은 2월 22일 주일날 배부될 예정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 사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신앙간증문(유아세례:서은찬)

서 중백 / 최 지에 집사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로의 인연으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신실한 가정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부족해서 결혼해서도 세상사의 성공이라는 목표로 앞만 보며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애기를 가질 여유가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싶더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와지면, 그리고 이번 시험만 통과하고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룬 이후에 애기를 가지자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너무도 철저히 이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완성될 즈음에 한 생명을 가졌고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철저히 저희 맘 속에 있었던 그 간사한 생각들을 눈물로 회개하기 전까지 두 번의 생명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세상에 맞춰진 기도를 회개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뱃속의 한 생명체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생겨날 때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펼쳐지는 창조 즉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저희 가정에도 매 순간 펼쳐지고 있고, 저희의 삶속에서도 매 순간 마다 오셔서 가는 길을 정해 주십니다. 저희는 지난번 부부청년회 모임 때 소기범목사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둘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뱃속에 지금 4개월의 아기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점 저는 노벨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노벨상을 받길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향기로운 향유로 가득히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있으며, 단 0.1초도 놓치지 않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부부가 명성교회에서 2부 찬양대를 하면서 너무도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름을 은찬이라고 지었습니다. 찬양하면서 흘린 눈물과 기도로 회개하면서 드린 눈물로 태어난 우리 은찬이의 자그만한 손이 오직 하나님을 영광되게 쓰임 받기를 기도 드립니다.

# 해바라기 소식

손이 시려워 꿈, 발이 시려워 꿈!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따뜻해요!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훌쩍 자라나는 겨울입니다. 두 돌이 갓 지나 예배 내내 뛰어다니기만 하던 꼬마가 봉헌쟁반을 들고 친척히 헌금위원을 합니다. 찬양을 듣는지 배우는지 알 수 없이 쿵쿵 뛰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덧 선생님과 함께 설교시간에 의젓하게 서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주님이 주시는 따스한 사랑의 햇살을 받으며 자라가는 해바라기 어린이들...

1월 25일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드릴 헌금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구약암송에 이어 올해는 신약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외우지요.

♪ 매튜, 마크, 루크, 존..... 레베레전!!♪

신구약을 통독하신 엄마, 아빠들도 제대로 못외우는 신약의 순서를 찬양을 통해 기쁘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1월 한달은 김선희 전도사님의 부재 가운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예배인도와 설교로 수고해주셨습니다. 찬양의 기쁨과 바디워십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신 중고등부의 김영순 집사님, 주일설교를 맡아주셨던 진정원, 박선희, 이미정, 강민형, 이은주, 이승연 선생님... 무엇보다 주일학교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사랑 많으신 여러 부모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겨울 안에서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봄날에 초록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들의 심령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온기를 느끼며 우리 어린이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덧붙임: 유년주일학교를 섬기실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김선희 전도사, 감동규 집사 (617-277-2002)에게 연락해주시시오.

## <고 김갑성 장로님 소천>

# 고 김갑성 장로님의 명복을 빕니다

김 약욱 집사



으로 온줄 알았다. 그리고 이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줄로 생각했다. 헌데, 또 다른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내가 있었다. 큰 가족을 거느리고, 먼저 이곳으로 온 다른 사내가 있었던 거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자손이 창대하게 됨을 감사해 했고, 새로 오는 후배 아브라함들을 보살폈으며, 그의 사랑하는 법을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평생을 하나님과 같이 한 그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감사해 했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장로님이다. 그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분이 편안히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많은 자손을 남기고, 후배들에게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떠났다. 베드로의 그림자처럼 그 분이 가셨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그 분이 우리에게 준 사랑으로 남기고 그 분은 하나님께로 돌아 가신 것이다.

이제 우린 그 분이 남긴 사랑을 배우고 즐긴다. 그리고 날마다, 우린 그 분이 남긴 자주빛의 당당한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그 분의 사랑을 본다.

정확히 11시 50 분이다. 작은 키에 환한 웃음의 그 분이 교회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선다. 그리고는 일일이 악수한다. '수고하십니다.' 그 분의 격려가 손이 따뜻한 만큼, 힘차고 더운 그 분의 목소리에 실려나온다. 매주 주일이면 나누던 그 분과의 인사이다. 고개 숙여 드리던 나의 인사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나만 아브라함인줄 알았다. 가족과 친지를 떠나 하나님이 계획하신대로 그저 이 곳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 받은후 공천위원으로 선출한다. 공평한 대표제 원칙(규례서 G-14.0223)에 따라 남녀, 각 연령층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4개 그룹은 (1) 집사회의 서리집사와 휴무 안수집사 그룹(집사회장이 모임을 주관한다), (2) 권사회와 상록회, (3) 여선교회(마리아와 에스더), 그리고 (4) 청년1, 2부와 부부청년부이다. 단 이들중 누구도 현 당회의 시무장로이거나, 현 집사회의 시무 안수집사이면 선출될 수 없다.

## 다. 장로 후보자 선정 지침 (신규 규정)

- 1) 교회 직분자로서 개인적 영적 자격은 성서와 <규례서> G-6.0300에 열거된 자격규정에 적합한 교인을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 2) 교회의 치리와 권정을 담당할 수 있는 권위와 신앙적 성숙함을 지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 존경받는 교인을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 3) 교회내의 전반적 사역(각 부서, 위원회 및 구역

활동 등)과 선교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헌신하는 교인을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 4) 교회 전반적인 사정을 살펴 해당년도에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인을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 5) 본 교회의 소속 교단인 장로교단(노회, 대회, 총회) 내의 활동과 특성에 적합한 교인을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라. 2009년에 한하여 규칙 개정후 6개월 이내에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 공천위원을 인준하고 선출한다.

## 7. 당회 각 위원회- 새로 섬기신 분들

- 이사장 및 사회정의위원장: 김정선 장로
- 해외선교위원장: 이선영 장로
- 국내선교 위원장: 이정규 피택 장로
- 부재정: 이정규, 김성현 피택 장로
- 집사회 고문: 안태준 장로
- 부공천위원장: 홍경자 장로
- 인사위원: 김세철 장로 (당연직: 김정선장로, 김문소장로(장))
- 감사: 홍동욱 장로
- 노회 총대: 한승희장로 (당연직-김문소 장로)
- (재임) 당회 서기: 김문소 장로
- (재임) 예배예술회위원장: 홍경자 장로

## <교인 위원회 소식>

# 2009년도 교구장 및 구역장 명단

2009년 새해에 수고하실 구역장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개교구 14구역

북동: 교구장: 강길원 장로  
구역장: 최정열집사(유임)

북서: 교구장: 박영철 장로  
1구역장: 박신영 집사(유임)  
2구역장: 박성준 집사(신임)

중앙: 교구장: 조준호 장로  
1구역장: 이숙재 권사(유임)  
2구역장: 이경자 집사(신임)

3구역장: 정하균 집사(신임)  
4구역장: 고진수 집사(유임)

중서: 교구장: 김성빈 장로  
1구역장: 방경남 집사(유임)  
2구역장: 한문수 집사(신임)  
3구역장: 유승오 집사(유임)  
4구역장: 이문영 집사(신임)

남동: 교구장: 김정선 장로  
구역장: 임숙현 집사(신임)

남서: 교구장: 최연일 장로  
1구역장: 심운보 집사(신임)  
2구역장: 이창호 집사(유임)